

『靈樞』 「九宮八風」에 對한 研究

成 信 · 李南九

東新大學校 韓醫學科 原典學教室

This chapter present Gugungdosul(九宮圖說) from idea that human correspond with nature intimately and based on the movements rule of heavenly bodies.

As the method of survey leebun(二分), leegi(二至), salip(四立), in other words circulation sequence of eight seasons(八個節氣), we can assumes the normality and abnormality of eight location climate change(八方氣候變化) and their various influence that come up to human body. So people adopt it as basic raw materials that prevent the disease. The name of this part call Googungpalpoong(九宮八風) because, first of all, if we do not establish the direction of Googung(九宮), we can not know direction of the wind from eight location.

The main contents of this chapter are as follows.

In the first chapter, it describes order and date that Taeil(太一) is located in Googung(九宮).

In the second chapter, it describes contents that estimate the change based on Taeilyugung(太一遊宮)

In the third chapter, it refers to diseases that eight wind manage.

However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it because in this chapter a printer's error, Chakgan(錯簡) and Gacha(假借) are numerous and the expression is changed before and behind.

Therefore we studied successive printed book and views of annotators for exact comprehension of the original text. If we do not consult the woodblock-printed book of successive generation and results of annotator's study,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original opinion. So in this part we study a woodblock-printed book of successive generation and view of annotators, and add adding notes, adjustment, translation to exact comprehension of the original text.

목차

I. 緒 論

II. 研究方法 및 資料

III. 本 論

1. 太一居九宮之日次

2. 太一遊宮所占之變

3. 八風所主之病

IV. 意 譯

V. 結 論

VI. 參考文獻

I. 緒 論

『九宮八風』은 『靈樞』 第七十七에 編述되어 있는데, 『太素』에는 卷二十八 「九宮八風」에, 『甲乙經』에는 卷六 第一 「八正八虛八風大論」에 一部가, 『類經』에는 卷二十七 「運氣類·九宮八風」에 敍述되어 있다.

本篇은 사람과 自然이 緊密하게 相應한다는 觀念에서 출발하여, 天體의 運行規律에 근거하여 九宮圖說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방법은 中央과 四正, 四隅의 九個方位를 確立하여 二分, 二至, 四立 등 八個 節氣의 循環順序를 測定할 수 있게 해 주므로서 八方氣候變化의 正常과 異狀 그리고 그들이 人體에 미치는 다양한 影響을 推定할 수 있게 해주고, 그에 따라 사람들이 疾病을 豫防하는 根據資料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九宮의 方位를 먼저 確立하여야 八方에서 불어오는 風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篇名을 九宮八風이라고 한 것이다.

本篇의 九宮이란 四正, 四隅, 中央의 九個方位를 말하고, 八風은 八方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한다. 九宮의 方位를 確定하여, 이를 근거로 八方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측정하고 이들 바람이 人體에 어떤 影響을 미치는 가를 논술하고 있는데, 이들 바람을 矢石을 피하듯

이 미리 미리 잘 예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九宮中 坎一宮은 北쪽에, 離九宮은 南쪽에, 震三宮은 東쪽에, 兌七宮은 西쪽에, 艮八宮은 東北쪽에, 坤二宮은 西南쪽에, 乾六宮은 西北쪽에, 巽四宮은 東南쪽에, 中五宮은 中央에 위치한다. 八風은 北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大剛風, 南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大弱風, 東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嬰兒風, 西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剛風, 東北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凶風, 西南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謀風, 西北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折風, 東南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弱風이라고 한다. 따라서 九宮의 方位를 알게 되면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 올 것인지를 豫測할 수 있게 되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本篇의 要旨이다.

本篇을 『黃帝內經章句索引』에는 모두 三章으로, 『靈樞經白話解』에서는 四章으로, 『黃帝內經靈樞經校注語譯』에서는 五章으로, 『靈樞經校釋』에서는 十四章으로 나누고 있는데, 著者は 그 內容을 檢討하여 三章으로 나누었다.

第一章에서는 太一이 九宮에 위치하는 차례와 일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第二章에서는 太一遊宮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第三章에서는 八風이 주관하는 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本篇은 誤植, 錯簡, 假借된 부분도 많고 앞뒤의 文句가 바뀌어 있는 부분도 있어 理解하기가 몹시 어렵다. 따라서 여러 版本과 歷代 註釋家들의 研究成果를 參照하지 않고는 본래의 趣旨를 解得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論文에서는 歷代의 版本과 註釋家들의 見解를 研究하여 校勘과 較註를 하고, 여기에 懸吐와 國譯을 加함으로써 原文의 보다 정확한 理解를 돕고자 한다.

II. 研究方法 및 資料

1. 研究方法

본 篇은 內容을 이해하기 쉽도록 本文과 註釋에 懸吐와 校勘을 하고 字句解·較註·考察·直譯·意譯의 順序로 연구하였다.

가. 原文은 『聚珍倣宋版印本』을 底本으로 하였다.

나. 本文의 단락을 『黃帝內經章句索引』, 『靈樞經白話解』, 『黃帝內經靈樞經校注語譯』, 『靈樞經校釋』을 參考하여 그 內容에 따라 三章으로 나누었다.

다.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基本으로 하였고 가능한 現代化하려고 노력하였다.

라. 校勘은 「表一」의 文獻을 涉獵·調査하였다.

마. 字句解는 各家의 註釋을 比較 參照하여 原文의 뜻에 가장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풀과 訓을 選擇하였다.

바. 較註는 「表二」의 十一種 研究資料의 註釋들을 같은 內容別로 모았으며, 그 가운데 가장 適合하다고 認定되는 註를 國譯하고 '●'로 표시하였으며, 註釋의 原文들은 脚註處理하여 參考하도록 하였다.

사. 直譯은 本文의 文法에 充實하도록 하였다.

아. 意譯은 校勘의 考察에서 校正한 內容과 較註에서 確定한 註釋의 內容을 따라 含蓄된 意味까지도 敷衍하여 解釋하였다.

자. 本 研究에 사용한 各種 符號는 校勘에 '00', 字句解에 '(00)', 較註에 '[00]', 引用文獻에 '『00』', 文獻의 章節에 '〃00〃', 脚註는 '1), 2), 3), 4)·····'의 一連番號로 表示하였다.

2. 研究 資料

〈표1〉 校勘에 引用한 文獻 및 略稱

番 號	書 名	略 稱
1	元至元己卯胡氏吉林書堂刊本	胡本
2	明成化十年甲午熊氏種德堂刊本	熊本
3	明繡谷書林周曰校重刊本	周本
4	明萬曆二十九年醫統正脈衆書本	統本
5	明金陵尙義齋刊本	金陵本
6	明刻本	明本
7	黃以周『內經鍼刺』光緒甲申校刻本	黃校本
8	上海涵芬樓影印道藏本	藏本
9	日本田中清左衛門刻本	日刻本
10	日本舊抄本	日抄本
11	黃帝鍼灸甲乙經	甲乙
12	黃帝內經太素	太素
13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注證發微
14	黃帝內經靈樞集注	集注
15	靈樞識	靈樞識

〈표2〉 較註 書目 및 略稱

番 號	註釋家	時代	書 目	略 稱
1	楊上善	隋	黃帝內經太素	楊
2	楊上善	隋	缺卷覆刻 黃帝內經太素	楊
3	馬蒔	明	黃帝內經靈樞 注證發微	馬
4	張介賓	明	類經	景 岳
5	張志聰	清	靈樞集注	張
6	黃元御	1756 年	靈樞縣解	黃
7	丹波元簡	1808 년	靈樞識	丹 波
8	陳璧疎 鄭卓人	1862 년	靈樞經白話解	白 話 解
9	楊維傑	民國6 5年	黃帝內經譯解 (靈樞)	傑
10	澁江抽齋	1981 年	靈樞講義	澁 江
11	郭霽春	1981 年	黃帝內經靈樞 校注語譯	郭
12	河北醫學 院	1982 年	靈樞經校釋	校 釋

III. 本 論

〈九 宮 圖〉

東南 陰 選 立 洛 四 夏	南 上 離 天 九 夏 至	南西 玄 坤 立 委 二 秋
東 倉 震 門 三 春 分	中 央 招 五 搖	西 倉 兌 果 七 秋 分
東北 天 艮 立 留 八 春	北 叶 坎 蟄 一 冬 至	西北 新 乾 洛 六 立 冬

合八風虛實邪正

【考 察】

1) 九宮의 方位

위의 그림은 九宮圖를 나타낸 것이다. 위 그림의 '合八風虛實邪正'이란 말은 九宮方位와 八風の 虛實邪正을 서로 結合해 놓은 것을 뜻한다. 各 宮의 位置에 標示해 놓은 方向과 節氣에 根據해 보면 四時風向의 差異를 推測할 수 있다.

九宮圖의 中央一宮(中宮)은 주위에 배열되어 있는 八宮의 核心이 된다. 옛날 사람들은 天象을 관찰하여 北極星(太一)이 恒常 北方에 위치하여 方向을 測定할 수 있는 唯一한 指標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北極星의 위치를 보고 北方을 확정하면 그 상대되는 면은 자연 南方이 되고 左側은 東, 右側은 西方이 되며 나머지 네 모서리를 합하면 四面八方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北極星을 中宮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子北에 위치하여 午南과 상대되고 있는 것이다. 中宮은 北斗七星이 北極星을 에워싸고 도는 규울로 方向을 측정하는 指針으로 삼은 것으로, 斗柄이 돌아가면서 가리키는 八宮方位에 근거해 보면 四時節氣의 變遷과 八方으로부터 오는 氣象의 變化를 미

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된다. 北極星은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北斗七星의 斗柄은 실제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北極星이 體라면 斗柄은 用의 관계를 이루어 中宮을 主持하게 되는 것이다. 위의 그림에 배열된 乾, 坎, 艮, 震, 巽, 離, 坤, 兌는 周易 文王八卦의 명칭으로서 八方에 위치하여 陰陽의 消長, 昇降, 進退의 여러 단계를 표시해 주고 있는데, 이로써 四時氣候의 변천을 알 수 있게 된다. 八卦의 위치는 그 五行屬性에 따라 八方에 배열되어 있는데 坎卦는 水에 속하여 北方에, 離卦는 火에 속하여 南方에, 震卦는 木에 속하여 東方에, 巽卦 또한 木에 속하여 東南方に, 兌卦는 金에 속하여 西方에, 乾卦 역시 金에 속하여 西北方に, 坤卦는 土에 속하여 西南方に, 艮卦 역시 東北方에 자리하고 있다.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節氣의 명칭은 八卦의 陰陽五行屬性과 관계가 있다. 震卦는 東方에 있어 春分節에, 離卦는 南方에 있어 夏至節에, 兌卦는 西方에 있어 秋分節에, 坎卦는 北方에 있어 冬至節에, 艮卦는 東北方에 있어 立春節에, 巽卦는 東南方に 있어 立夏節에, 坤卦는 西南方に 있어 立秋節에, 乾卦는 西北方に 있어 立冬節에 상응하여 二分, 二至, 四立의 八節을 나타내고 있다.

2) 九宮數

그림에는 또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배열 형식은 '上九下一 左三右七 二四爲肩 六八爲足 五居中央'으로 되어 있다. 이는 洛書九宮數를 나타낸 것으로 『周書·洪範』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숫자의 배열은 東南西北의 方位에 따라 旋回하고 있는데 바로 左三, 上九, 右七, 下一의 순서이다. 이 숫자는 陽數는 一이고 陰數는 二이므로 陰陽을 서로 합하여 一에 二를 더하면 三이 되는데 이 三을 東方에 배속시키고, 나머지는 三을 제곱시켜 四方에

나누어 놓은 것이다. 東方震宮은 三이므로 三에 三을 곱하면 九가 되는데 이는 바로 南方離宮의 九數가 되고, 南方離宮의 九에 다시 三을 곱하면 二十七이 되는데 이는 바로 西方兌宮의 七數가 되며, 西方兌宮의 七에 다시 三을 곱하면 二十一이 되는데 이는 바로 北方坎宮의 一數가 되고, 北方坎宮의 一에 三을 곱하면 三이 되는데 이는 東方震宮의 數인 三數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이와 같이 正方に 위치한 數는 모두 單數로서 奇數 혹은 陽數가 되는데, 이러한 숫자의 多寡는 四季氣候의 寒溫變化와 하루중의 햇빛의 強弱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東方震宮은 春分이므로 東方의 三數는 春溫을 나타낸다. 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萬物이 발생하게 되고, 따뜻했던 날씨가 極盛해지면 南方離宮의 九數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는 夏至에 해당된다. 여름이 되어 날씨가 더워지면 만물을 長養하게 되고, 더웠던 날씨가 極에 이르면 西方兌宮의 七數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는 秋分에 해당된다. 가을에 날씨가 서늘해지면 만물을 收斂하게 되고, 서늘했던 날씨가 극에 이르게 되면 北方坎宮의 一數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는 冬至에 해당된다.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만물을 潛藏하게 된다. 겨울에 추웠던 날씨가 극에 이르면 다시 東方震宮의 三數로 회귀하여 따뜻해지게 되는 현상과 같은 것들이다. 또 하루중의 溫度로 이야기해 보면 東方의 三數는 黎明期로서 햇빛이 조금씩 증가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南方의 九數는 正午期로 햇빛이 가장 강할 때를 나타내고 있으며, 西方의 七數는 下午期로 햇빛이 조금씩 감소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北方의 一數는 햇빛이 가장 弱해지는 현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림 가운데 四維方은 모두 複數로서 偶數 혹은 陰數가 되는데 이것의 回轉方向은 陽數와 相反된다. 陰數는 西南方坤宮인 二를 起点

으로 하여 開始되는데, 이 西南方坤宮의 數인 二에 二를 곱하면 四가 되니 이는 바로 東南方巽宮의 四數가 되고, 東南方巽宮의 數인 四에 다시 二를 곱하면 八이 되니 이는 바로 東北方艮宮의 八數가 되며, 東北方艮宮의 數인 八에 다시 二를 곱하면 十六이 되니 이는 바로 西北方乾宮의 六數가 되고, 西北方乾宮의 數인 六에 다시 二를 곱하면 十二가 되니 이는 바로 西南方坤宮의 數인 二로 돌아온 것이다. 陰數의 多寡와 旋回順序도 또한 四季와 하루중의 溫度를 나타내어 추위가 물러가면 더위가 오고, 낮이 기울면 밤이 오는 현상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림 중앙의 五數는 中宮의 숫자로 土氣를 나타내며 모든 變化의 근원이 된다.

3) 九宮의 名稱

各 宮의 명칭은 八卦方位와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季節, 氣候에 근거하여 이름이 붙여졌다. 이에 관해서는 倪仲玉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坎宮의 名稱을 蟄이라고 한 것은 冬令은 蟄居, 封藏을 주재하는데 一陽이 처음으로 發動하는 시기에 이르러 蟄居하였던 벌레들이 비로소 떨치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름을 蟄이라고 한 것이다. 艮宮의 名稱을 天留라고 한 것은 艮卦는 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停止하여 움직이지 않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震宮의 名稱을 倉門이라고 한 것은 倉은 貯藏하는 것이니, 天地萬物의 氣가 收藏되었다가 東方春令에 이르러 비로소 震動, 開闢하게 되므로 倉門이라 한 것이다. 巽宮의 명칭을 陰洛이라고 한 것은 洛書에 二四는 肩이 된다고 했는데 巽宮의 위치가 東南方に 있으면서 四月을 주관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離宮의 명칭을 天宮이라고 한 것은 日月은 하늘에 짝하여 불과 밝음이 위에 있는 形象을 주관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坤宮의 명칭을 元委라고 한 것은 坤卦는 땅, 元은 幽遠, 委는 隨順의 뜻으로 地道라는 것이 幽遠하고 柔順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兌宮의 명칭을 倉果라고 한 것은 果는 과실의 의미인데, 萬物이 가을에 이르러 기운이 收藏되어 열매를 맺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乾宮의 명칭을 新洛이라고 한 것은 新은 始作의 뜻이고, 洛書에 九를 이고 一을 밟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一은 바로 乾卦의 시작인 것이다. 이 九宮의 위치라는 것은 八方과 四時에 상응하므로 各其 시간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4) 八風의 名稱

八風은 東西南北 四正과 東南, 西南, 西北, 東北 四維의 八方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한다. 그림에는 그 명칭이 나와 있지 않지만 第三章에 보면 이 八風에 독특한 명칭을 붙이고 있다. 東方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嬰兒風, 東南方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弱風, 南方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大弱風, 西南方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謀風, 西方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剛風, 西北方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折風, 北方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大剛風, 東北方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凶風으로 되어 있다. 이 名稱에 대한 유래를 張景岳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洛書 九宮圖와 文王八卦에 基礎해서 해설한 것이다.

1. 風從東方來 名曰嬰兒風: 東方은 震木宮也니 風生於東 故로 曰嬰兒風이라
2. 風從東南方來 名曰弱風: 東南方은 巽水宮也니 氣緩則風柔 故로 曰弱風이라
3. 風從南方來 名曰大弱風: 南方은 離火宮也니 凡熱盛之方에 風至必微 故로 曰大弱風이라
4. 風從西南方來 名曰謀風: 西南方은 坤土宮

也니 陰氣方生에 陽氣猶盛하여 陰陽去就가 若有所議 故로 曰謀風이라

5. 風從西方來 名曰剛風: 西方은 兌金宮也니 金氣剛勁 故로 曰剛風이라
6. 風從西北方來 名曰折風: 西北方은 乾金宮也니 金主折傷 故로 曰折風이라
7. 風從北方來 名曰大剛風: 北方은 坎水宮也니 氣寒則風烈 故로 曰大剛風이라
8. 風從東北方來 名曰凶風: 東北方은 艮宮也니 陰氣未退에 陽和未盛 故로 曰凶風이라

이들 이름은 嬰兒風, 弱風, 大弱風, 剛風, 大剛風, 凶風과 같이 바람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謀風, 折風, 凶風과 같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어진 것도 있다. 風向이나 風速은 季節에 따라 변화하며, 이들 변화가 인간의 體內氣血에 일정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연적으로 요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뿐 아니라 古代社會에서는 氣候의 변화가 人間生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農耕社會에서는 耕作의 成敗가 氣候의 正常 혹은 非正常과 直接的으로 관련이 있게 되고, 이 耕作의 成敗는 二次的으로 인간의 健康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古代에 있어서 氣候變化를 파악하는 일은 人間生存과 直接적으로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現代에 있어서도 氣象學이 인간의 生存과 健康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데 韓醫學的 研究結果들을 구체적으로 의학에 응용하는 방법을 再照明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 太一居九宮之日次

【原文】

太一(1)은 常以冬至之日로 居叶1)(2)蟄之宮四十六日하고 明日에 居天留四十六日하고

明日에 居倉門四十六日하고 明日에 居陰洛四十五日하고 明日에 居天宮2)四十六日하고 明日에 居玄委四十六日하고 明日에 居倉果四十六日하고 明日에 居新洛四十五日하고 明日에 復居叶蟄之宮하니 曰冬至矣라

【校勘】

- 1) 叶: 『太素』卷二十八「九宮八風」에는 '汁'으로 되어 있다.
- 2) 天宮: 『太素』卷二十八「九宮八風」에는 '上天'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1) 太一: 오늘날의 北極星으로 天球의 北極에 가까이 만나는 작은곰자리의 首星인 별. 日周運動을 위하여 거의 그 위치를 바꾸지 않으므로 방위 및 세줄의 지침이 됨. 누런 빛깔의 二等星으로 北辰, 天極이라고도 함.

(2) 叶: 合也 맞을, 助也 도울, 和也 화할 함.

【較註】

〔1〕 太一常以冬至之日 居叶蟄之宮四十六日 明日居天留四十六日 明日居倉門四十六日 明日居陰洛四十五日 明日居天宮四十六日 明日居玄委四十六日 明日居倉果四十六日 明日居新洛四十五日 明日復居叶蟄之宮 曰冬至矣

馬·景岳은 "太一은 北辰이니, 살펴보면 西志에 '中宮天極星의 제일 밝은 곳은 太一이 항상 머문다'고 하였다. 대개 太라는 것은 至尊의 稱號이고, 一이라는 것은 萬數의 出發點으로 天元을 主宰하기 때문에 太一이라고 한 것이니 卽 北極이다. 北極은 中央에 위치하여 움직이지 않고 斗星이 밖에서 움직이는데, 斗星에는 七星이 있어 一星(北極)에 붙어 있다. 斗星中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는 魁라 하고, 다섯 번째에서 일곱째까지는 杓라 한다. 斗杓가 十二辰을 돌아가면서 가리켜 節氣

를 세우게 되는데 北極이 이를 統括하므로 北辰이라 한다. 옛날부터 ‘太一이 璇璣를 돌아 七政을 가지런히 한다’고 한 것이 이것을 말한 것이다. 斗杓가 가리키는 별자리를 月建이라고 하니, 바로 氣습이 왕성해지는 방위이다. 예를 들면 冬至節에는 月建이 正北에 있기 때문에 ‘太一이 呬宮에 있게 된다’고 한 것이다. 呬宮은 坎宮이니 一年 날수를 八宮으로 分屬시키면 每宮은 四十六일이 되나 오직 乾巽의 天門地戶 兩宮은 四十五일에 지나지 않으니, 모두 三百六十六일이 되어 一年을 이룬다. 뒤도 이것과 같다. 坎宮四十六일은 冬至, 小寒, 大寒의 三節을 주관한다. 明日은 바로 上文의 四十六日 다음날이니 四十七일에 起始함을 말한다. 뒤도 이와 같다. 天留는 艮宮이니 立春, 雨水, 驚蟄 三節四十六일을 주관하는데 太一이 移居한 곳으로서 앞 呬宮의 날수에 이어 모두 九十二일에 끝난다. 倉門은 震宮이니 九十三日째에 起始하여 春分, 清明, 穀雨, 三節 모두 四十六일에 해당되는데 앞의 날수에 이어 一百三十八일에 이르러 끝난다. 陰洛은 巽宮이니 一百三十九日째에 起始하여 立夏, 小滿, 芒種 三節 모두 四十五일을 주관하다가 一百八十三日째에 이르러 끝난다. 天宮은 離宮이니 夏至, 小暑, 大暑 三節 모두 四十六일을 주관하여 二百二十九일에 이르러 끝난다. 玄委는 坤宮이니 立秋, 處暑, 白露 三節 모두 四十六일을 주관하여 二百七十五일에 이르러 끝난다. 倉果는 兌宮이니 秋分, 寒露, 霜降 三節 모두 四十六일을 주관하여 三百二十一日에 이르러 끝난다. 新洛은 乾宮이니 立冬, 小雪, 大雪 三節 모두 四十五일을 주관하여 三百六十六일에 이르러 일년의 날수를 다 돌고 끝난다. 매 년마다 一周를 다 하고 나면 다시 呬宮에서 起始하여 冬至節에 交代되는데 바로 來年의 첫 날이다.”¹⁾고 하였고,

1) 馬: 此는 言太乙居九宮之日에 各有所忌也라

太乙者는 歲神也라 常以冬至之日로 居於坎方呬宮之宮하니 計有四十六日이라 至次日乃第四十七日也엔 則爲立春而居於艮方之天留宮하니 亦計四十六日이요 連前이면 共計九十二日이라 至次日乃第九十三日也엔 則爲春分而居於震方之倉門宮하니 亦計四十六日이요 連前이면 共計一百三十八日이라 至次日乃一百三十九日也엔 則爲立夏而居於巽方之陰洛宮하니 亦計四十五日이요 連前이면 共計一百八十三日이라 至次日乃一百八十四日也엔 則爲夏至而居於離方之上天宮하니 亦計四十六日이요 連前이면 共計二百二十九日이라 至次日乃二百三十日也엔 則爲立秋而居於兌方之倉果宮하니 亦計四十六日이요 連前이면 共計三百二十一日이라 至次日乃三百二十二日也엔 則爲立冬而居於乾方之新洛宮하니 亦計四十五日이요 連前이면 共計三百六十五日이라 至次日乃來歲之冬至엔 又居坎方之呬宮矣라 ●景岳: 太一은 北辰也니 按西志에 曰 中宮天極星의 其一明者는 太一之常居也라하니라 蓋太一者는 至尊之稱이요 一者는 萬數之始니 爲天元之主宰 故로 曰太一이니 卽北極也라 北極은 居中不動而斗運於外하니 斗有七星이요 附者一星이라 自一至四爲魁요 自五至七爲杓니 斗杓旋指十二辰하여 以建時節而北極統之라 故로 曰北辰이니 古云 太一運璇璣하여 以齊七政者가 此之謂也라 斗杓所指之辰을 謂之月建이니 卽氣令所王之方이라 如冬至節에 月建이 在正北 故로 云太一居呬宮之宮이라 呬宮은 坎宮也니 以周歲日數로 分屬八宮이면 則每宮이 得四十六日이나 惟乾巽天門地戶兩宮은 止四十五日이니 共紀三百六十六日하여 以盡一歲之數라 後放此하니라 坎宮四十六日은 主冬至小寒大寒三節이라 明日은 卽上文四十六日之次日이니 謂起於四十七日也라 後放此하니라 天留는 艮宮也니 主立春雨水驚蟄三節共四十六日하니 太一之所移居也요 連前이면 共九十二日而止라 倉門은 震宮也니 自九十三日起하여 當春分清明穀雨三節共四十六日하여 至一百三十八日而止라 陰洛은 巽宮也니 自一百三十九日起하여 主立夏小滿芒種三節共四十五日하여 至一百八十三日而止라 天宮은 離宮也니 主夏至小暑大暑三節共四十六日하여 至二百二十九日而止라 玄委는 坤宮也니 主立秋處暑白露三節共四十六日하여 至二百七十五日而止라 倉果는 兌宮也니 主秋分寒露霜降三節共四十六日하여 至三百二十一日而止라 新洛은 乾宮也니 主立冬小雪大雪三節共

張은 “---中略---倪仲玉이 말하였다. ‘坎宮의 名稱을 叶蟄이라고 한 것은 冬令은 蟄居, 封藏을 주재하는데 一陽이 처음으로 發動하는 시기에 이르러 蟄居하였던 벌레들이 비로소 떨치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름을 叶蟄이라고 한 것이다. 艮宮의 名稱을 天留라고 한 것은 艮卦는 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停止하여 움직이지 않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震宮의 名稱을 倉門이라고 한 것은 倉은 貯藏하는 것이니, 天地萬物의 氣가 收藏되었다가 東方春令에 이르러 비로소 震動, 開闢하게 되므로 倉門이라 한 것이다. 巽宮의 명칭을 陰洛이라고 한 것은 洛書에 二四는 肩이 된다고 했는데 巽宮의 위치가 東南方에 있으면서 四月를 주관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離宮의 명칭을 天宮이라고 한 것은 日月은 하늘에 짝하여 불과 밝음이 위에 있는 形象을 주관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坤宮의 명칭을 元委라고 한 것은 坤卦는 땅, 元은 幽遠, 委는 隨順의 뜻이다. 地道라는 것은 幽遠하고 柔順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兌宮의 명칭을 倉果라고 한 것은 果는 果實의 의미인데, 萬物이 가을에 이르러 氣운이 收藏되어 열매를 맺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乾宮의 名칭을 新洛이라고 한 것은 新은 始作의 뜻이고, 洛書에 九를 이고 一을 밝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一은 바로 乾卦의 시작인 것이다. 이 九宮의 위치라는 것은 八方과 四時에 상응하므로 各其 시간에 따라

四十五日하여 至三百六十六日하여 周一歲之全數而止라 歲盡一周하면 復起於叶蟄之宮하여 交於冬至하니 乃爲來歲之首也라 *北斗七星: 북쪽 하늘의 큰곰자리(大熊座)에서 가장 뚜렷이 보이는 국자모양의 일곱 개의 별. 중국에서는 天樞, 天璇, 天璣, 天權, 玉衡, 開陽, 搖光이라 이름하여 앞의 네 별을 魁라 이름하고 뒤의 세 별을 杓라고 하였음. 위치는 하늘 北極에서 30도 떨어져 있는데 魁의 두 별을 연장한 곳에 北極星이 있음. 搖光이 하루에 12방위를 가리키는 까닭에 옛날에는 時刻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²⁾고 하였다.

【考察】

1) ‘叶’은 協의 古語로서 汙과 通한다. 왜냐하면 『周禮注疏·秋官』 大行人鄭司農注에 ‘叶은 汉이다’³⁾고 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따라서 『太素』에 汉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옳다.

2) ‘天宮’은 ‘上天’의 惡植으로 보인다. 왜냐

2) 張: 盧良侯曰 此篇은 論太乙所居之宮이 徙遊之日에 以下應君民將相之安否也라 太乙은 北極也라 斗杓所指之辰을 謂之月建이니 卽 氣令所主之方이라 月令에 五日을 謂之候요 三候를 謂之氣요 三氣를 謂之節이라하니라 冬至子之半에 一陽初動하니 乃歲時之首也라 是以로 太乙은 常以冬至之日로 居叶蟄之宮이라 叶蟄은 坎宮也니 本宮이 居四十六日하고 明日四十七日에 徙居於天留之宮이라 天留는 艮宮也니 居四十六日하고 明日에 徙居於倉門之宮이라 倉門은 震宮也니 居四十六日하고 明日에 徙居於陰洛之宮이라 陰洛은 巽宮也니 居四十五日하고 明日에 徙居於天宮이라 天宮은 離宮也니 居四十六日하고 明日에 徙居於元委之宮이라 元委는 坤宮也니 居四十六日하고 明日에 徙居於倉果之宮이라 倉果는 兌宮也니 居四十六日하고 明日에 徙居於新洛之宮이라 新洛은 乾宮也니 居四十五日하고 明日四十六日에 復居叶蟄之宮하니 是明歲之冬至矣라 常如是無已하여 終而復始하니 此太乙一歲所居之宮也라 倪仲玉이 曰 坎宮名叶蟄者는 冬令은 主蟄封藏하니 至一陽初動之時에 蟄蟲始振 故로 名曰叶蟄이라 艮宮名天留者는 艮爲山이라 止而不動하니 因以爲名이라 震宮名倉門者는 倉은 藏也니 天地萬物之氣收藏이라가 至東方春令而始震動開闢 故로 名倉門이라 巽宮名陰洛者는 洛書에 以二四爲肩이요 巽宮位가 居東南而主四月하니 因以爲名이라 離宮名天宮者는 日月麗天하여 主離明在上之象하니 因以爲名이라 坤宮名元委者는 坤爲地요 元은 幽遠也요 委는 隨順也라 地道幽遠柔順하니 是以名之라 兌宮名倉果者는 果는 實也라 萬物至秋而收藏成實하니 是以名之라 乾宮名新洛者는 新은 始也요 洛書에 戴九履一하니 一乃乾之始也라 此九宮之位가 應於八方四時하여 各隨時而命名也라

3) 周禮注疏 秋官 鄭司農注: 叶은 當爲汉이라

하면 本篇 첫머리에 나오는 九宮圖에 '上天'으로 기재되어 있고, 『太素』卷二十八「九宮八風」에도 '上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上天'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直譯】

太一은 恒常 冬至日로부터 叶蟄宮에 四十六日 동안 머물고, 明日에는 天留宮에 四十六日 동안 머물고, 明日에는 倉門宮에 四十六日 동안 머물고, 明日에는 陰洛宮에 四十五日 동안 머물고, 明日에는 天宮에 四十六日 동안 머물고, 明日에는 玄委宮에 四十六日 동안 머물고, 明日에는 倉果宮에 四十六日 동안 머물고, 明日에는 新洛宮에 四十五日 동안 머물고, 明日에는 다시 叶蟄宮에 머물게 되는데 冬至日이다.

2. 太一遊宮 所占之變

【原文】

太一日遊는 以冬至之日로 居叶蟄之宮하니 數所在日하면 從一處로 至九日하여 復反於一하니 常如是無已하여 終而復始라 太一移日 1)(1)에 天必應之以風雨하니 以其日風雨則吉하여 歲美民安少病矣2)요 先之則多雨하고 後之則多汗3)이라 太一이 在冬至之日할새 有變(2)하면 占(3)在君이요 太一이 在春分之日할새 有變하면 占在相이요 太一이 在中宮之日할새 有變하면 占在吏(4)요 太一이 在秋分之日할새 有變하면 占在將이요 太一이 在夏至之日할새 有變하면 占在百姓이라 所謂有變者는 太一이 居五宮之日(5)이니 病風4)折樹木하며 揚沙石하니 各以其所主5)로 占貴賤이라

因視風所從來而占之6)라 風從其所居之鄉來爲實風7)(6)이니 主生長養萬物하고 從其衝(7)後來爲虛風8)(8)이니 傷人者也9)니 主殺主害者10)라 謹候虛風而避之11)라 故로 聖人이

日避虛邪之道를 如避矢石然하여 邪弗能害12)라하니 此之謂也라

【校勘】

- 01) 太一移日: 『太素』卷二十八「九宮八風」에는 '太一徙日'로 되어 있다.
- 02) 吉歲美民安少病矣: 『太素』卷二十八「九宮八風」에는 '吉歲矣 民安少病矣'로 되어 있다.
- 03) 多汗: 『太素』卷二十八「九宮八風」에는 '多旱'으로 되어 있다.
- 04) 病風: 『太素』卷二十八「九宮八風」과 『集注』에는 '疾風'으로 되어 있다.
- 05) 各以其所主: 『太素』卷二十八「九宮八風」에는 '各以其所生'으로 되어 있다.
- 06) 因視風所從來而占之: 金陵本과 黃校本에는 '因視風所來而占之'로 되어 있다.
- 07) 風從其所居之鄉來爲實風: 『太素』卷二十八「九宮八風」에는 '從其所居之鄉來爲實風'으로 되어 있다.
- 08) 從其衝後來爲虛風: 『甲乙』卷六第一과 『太素』卷二十八「九宮八風」에는 '風從其衝後來爲虛風'으로 되어 있다.
- 09) 傷人者也: 『甲乙』卷六第一에는 '賊傷人者也'로 되어 있다.
- 10) 主殺主害者: 『甲乙』卷六第一에는 '主殺害'로 되어 있다.
- 11) 謹候虛風而避之: 『甲乙』卷六第一에는 '必謹候虛風而謹避之'로 되어 있다.
- 12) 聖人日避虛邪之道 如避矢石然 邪弗能害: 『甲乙』卷六第一에는 '避邪之道 如避矢石然後邪弗能害'로 되어 있고, 『太素』卷二十八「九宮八風」에는 '聖人日避虛邪之道 如避矢石然 弗能害'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太一移日: 節氣가 交叉되어 太一이 各宮을 지나는 날짜를 말함.
- (2) 有變: 氣候가 非正常的으로 갑자기 變

하는 것을 말함.

(3) 占: 豫測의 뜻임.

(4) 吏: 官屬, 아전 등 下級官吏를 말함.

(5) 太一居五宮之日: 太一이 子午卯酉 四正位(春分, 秋分, 冬至, 夏至)에 머무는 날과四季에 土氣가 旺盛하여 用事하는 날(中宮之日)을 말함.

(6) 實風: 萬物의 生長에 有利한 正常氣候를 말함.

(7) 衝後: 衝은 季節과 風向이 서로 반대되어 相衝하는 현상을 말하고, 後는 바람의 來源이 멀어서 氣가 盛한 것을 말함.

(8) 虛風: 萬物의 生長에 有害한 異狀氣候를 말함.

【較註】

[1] 太一日遊 以冬至之日 居叶蟄之宮 數所在日 從一處至九日 復反於一 常如是無已 終而復始

馬·景岳·張·白話解·校釋은 “그 太乙이 옮겨가는 날짜는 예를 들면 冬至에는 太一이 叶蟄宮에 있게 되는데 九宮度數에 기재되는 있는 날짜를 살펴보면 一處에서부터 九處에까지 이르게 되어있다. 冬至가 첫 번째, 立秋가 두 번째, 春分이 세 번째, 立夏가 네 번째, 中央이 다섯 번째, 立冬이 여섯 번째, 秋分이 일곱 번째, 立春이 여덟 번째, 夏至가 아홉 번째인데 이 과정이 끝나면 다시 冬至 첫 번째로 돌아와 항상 이와 같이 轉輪가 그치지 아니하여 끝나면 다시 시작하게 된다.”⁴⁾고 하였다.

4) ●馬: 其太乙所遊之日은 假如冬至에 居叶蟄之宮하니 照圖數所在之日하면 從一處至九라 冬至爲一이요 立秋爲二이요 春分爲三이요 立夏爲四이요 中央爲五이요 立冬爲六이요 秋分爲七이요 立春爲八이요 夏至爲九니 復反於冬至之一하여 常如是輪之無已하여 終而復始라 ○景岳: 此는 結上文而總其義也라 太乙이 始於坎하여 終於乾하니 乃八宮之日也라 八盡而九면 則復反於一而循環無已矣라 然이나

[2] 太一移日 天必應之以風雨 以其日風雨則吉 歲美民安少病矣 先之則多雨 後之則多汗

馬는 “太乙이 옮겨가는 날에는 하늘이 반드시 風雨로 反應하는데, 이 날에 風雨가 있으면 반드시 그 해의 기후가 좋아 백성들이 편안하여 病이 적게 된다. 太乙이 옮겨가는 날보다 앞서 風雨가 있게 되면 하늘에서는 반드시 비가 많이 되고 太乙이 옮겨가는 날보다 뒤에 風雨가 있게 되면 백성들한테 반드시 땀이 많이 된다.”⁵⁾고 하였고,

景岳·白話解·校釋은 “移日이라는 것은 節氣가 交叉되어 각 宮을 지나는 날짜이다. 節氣 前後에는 반드시 風雨가 反應하게 되는데 만약 그 날짜에 當하여 風雨가 調和로우면吉하다. 그러므로 날씨는 아름답고 백성들은 편안하여 病이 적게 된다. 汗은 마땅히 雨으로 써야 된다. 風雨가 太乙이 옮겨가는 期日보다 앞서 나타나면 그 氣가 有餘하기 때문에 비가 많고, 風雨가 期日보다 늦게 이르면 그 氣는 不足하기 때문에 旱魃이 많이 된다.”⁶⁾고 하였

河圖宮九而此居惟八하니 蓋中宮爲太乙所主而臨御乎八宮者也라 ○張: 盧良侯曰 此는 太一日遊于九宮也라 數所在日者는 以所在之宮으로 數至九日而復反於本宮也니 如居叶蟄之宮則從叶蟄之一處로 一日而至天留하고 二日而至倉門하고 三日而至陰洛하고 四日而至天宮하고 五日而至中宮하고 六日而至元委하고 七日而至倉果하고 八日而至新洛하고 九日而復反於叶蟄之宮이라 如居天留之宮即從天留로 數至九日而復反於天留也니 常如是無已하여 終而復始라 ○白話解: 從一處至九日의 一處는 是指屬于一數而位在北方的坎宮이니 即冬至日에 太一所居叶蟄宮의 方位요 九日은 是指太一이 在各個方位上依次游行了九日이라 ○校釋: 太一日遊는 是指太一이 從一宮으로 轉向下一宮의 第一天이요 也就是交換節氣의 日期라

5) 馬: 遇太乙移日에 天必應之以風雨하니 此日有風雨則必歲美民安少病이라 先於所移之日而有風雨則天必多雨하고 後於所移之日而有風雨則民必多汗이라

6) ●景岳: 移日은 交節過宮日也라 節之前後에

으며,

張은 “盧良侯가 말하였다. ‘風雨라는 것은 天地陰陽의 和氣이기 때문에 太乙이 移宮하는 날에는 하늘에서 반드시 風雨로 反應하게 되는데 바로 그 날에 風雨가 있게 되면 吉하여 날씨가 아름답고 백성들이 편안하여 病이 적게 된다. 만일 期日에 앞서 風雨가 오게 되면 주로 비가 많이 내려 습기가 많게 된다. 多汗은 마땅히 多旱으로 쓰여져야 하니, 期日에 뒤 처져 風雨가 오게 되면 旱魃이 와서 건조하게 된다. 이 太乙이 出遊하는 첫 번째 날짜는 바로 宮을 옮기는 第四十七日이 된다.”⁷⁾고 하였다.

[3] 太一在冬至之日有變 占在君 太一在春分之日有變 占在相 太一在中宮之日有變 占在吏 太一在秋分之日有變 占在將 太一在夏至之日有變 占在百姓 所謂有變者 太一居五宮之日 病風折樹木 揚沙石 各以其所主 占貴賤이라

馬·景岳·張·丹波·校釋·語譯은 “冬至는 一年의 우두머리이고 位置가 正北에 있는데, 임금은 宸極(궁궐)에 거처하고 南面하여 百姓

必有風雨應之니 若當其日하여 而風雨和調則 吉이라 故로 歲美民安少病也라 汗은 當作旱이라 風雨先期而至하면 其氣有餘 故로 多雨요 風雨後期而至하면 其氣不足 故로 多旱이라 ○白話解: 太一移日은 是指太一이 從一宮으로 轉向另一宮的那天이요 也即交換節氣之日이라 例如立春은 爲太一由叶蟄宮轉向天留宮之日이요 春分은 爲太一由天留宮轉向倉門宮之日等等을 都叫做太一移日이라 汗은 當作旱이라 這是根據太一移日的前後幾日에 所出現的氣象變化來하여 作爲豫測這一季節中多雨或多旱이라 ○校釋: 太一移日은 是指太一이 從一宮으로 轉向下一宮的第一天이요 也就是交換節氣的日期라

7) 張: 盧良侯曰 風雨者는 天地陰陽之和氣니 是以로 太乙移宮之日에 天必應之以風雨하니 其本日風雨則吉하여 歲美民安少病이라 如先期而風雨면 主多雨水하고 多汗은 當作多旱이니 後期而風雨則多旱燥라 此太乙出遊之第一日은 即移宮之第四十七日也라

을 다스리므로 그 형상이 서로 相應한다. 그러므로 임금의 이상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 春分은 卯方의 한 가운데이고 위치가 正東인데, 宰相은 文治를 維持하여 職責이 教化를 맡고 있으므로 그 형상이 봄과 상응한다. 그러므로 재상의 이상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 中宮은 土에 屬하여 四季節 末尾에 旺盛해 지는데, 下級官吏(아전)는 일을 나누어 맡고 있으므로 그 형상이 서로 상응한다. 그러므로 官吏들의 이상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 秋分은 酉方의 한 가운데이고 위치가 正西인데, 將軍은 威武가 堂堂하여 職責이 적을 殺伐시키는 일을 맡고 있으므로 그 형상이 서로 상응한다. 그러므로 將帥의 이상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 夏至는 午方의 중앙이 되고 位置가 正南인데, 모든 백성들도 이 때에 蕃盛하므로 그 형상이 서로 상응한다. 그러므로 百姓들의 이상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는 上文의 有變의 意義를 해석한 것인데, 그 病이 바람과 흙비의 異常에 달려 있어 樹木이 꺾어지고 沙石이 휘날리는 것이 바로 變이라는 것이고, 그런 變化가 없으면 병도 없는 것이다. 太乙居五宮之日이라는 것은 變化가 심하게 일어나는 때를 이야기한 것인데 春分, 秋分, 夏至, 冬至와 中宮이 應하는 때 바로 四季에 土氣가 旺盛하여 用事하는 때이다.”⁸⁾고 하였다.

8) 馬: 太乙이 在冬至之日하여 有變하면 當占在君이요 在春分之日하여 有變하면 當占在相이요 在中宮之日하여 有變하면 當占在吏요 在秋分之日하여 有變하면 當占在將이요 在夏至之日하여 有變하면 當占在百姓이라 所謂有變者는 太一이 居東南西北中央五宮之日이요 所病者는 有大風折木揚沙石하되 各以其所在之宮으로 與其分之貴賤하니 如君相吏將民之謂也라 ●景岳: 冬至爲一歲之首요 位在正北이여늘 君居宸極하여 南面而治하니 其象應之라 故로 占在君이라 春分爲卯之中이요 位在正東이여늘 相持文衡하여 職司教化하니 其象應春이라 故로 占在相이라 中宮屬土하여 王在四維어늘 吏有分任하니 其象

〔4〕因視風所從來而占之니 風從其所居之鄉來爲實風이니 主生長養萬物하고 從其衝後來爲虛風이니 傷人者也니 主殺主害者라 謹候虛風而避之라 故로 聖人이 日避虛邪之道를 如避矢石然하여 邪弗能害라하니 此之謂也라

馬·張은 “風이 자기가 거처하는 곳에서 왔다는 것은 예를 들면 冬至에 바람이 北方에서 불어오고 春分에 東方에서 불어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實風이라고 하며 生長을 주관하여 萬物을 기르는 것이다. 或 風이 뒤로부터 충돌해 왔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冬至에 南西 두 방향에서 오거나 春分에 西北 두 방위에서 온 것이니 이것을 虛風이라고 하는데 殺害를 주관하여 사람을 해친다. 삼가 이 虛風을 살펴 避해야 할 것이지만 오직 聖人만

應之라 故로 占在吏라 秋分爲西之中이요 位居正西어늘 將在威武하여 職司殺伐하니 其象應秋라 故로 占在將이라 夏至爲午之中이요 位在正南이어늘 兆民衆庶가 如物蕃盛하니 其象應夏라 故로 占在百姓이라 此는 釋上文有變之義니 其病이 在風羅異常하여 折樹木하며 揚沙石者가 乃謂之變이요 否則非也라 太乙居五宮之日은 言所重者니 在子午卯酉四正之節及中宮之應이니 卽四季土王用事之日이 是也라 *宸極(신극): 임금의 居所, 帝王의 位. 文衡: 文章으로 선비를 試驗하여 取捨選擇하는 權限으로, 文章을 評價하는 것이 마치 저울로 물건을 재는 것과 같았으므로 文衡이라 하였다. 子午卯酉四正之節及中宮之應: 子午卯酉四正之節은 二分, 二至를 말하고, 中宮은 土氣가 用事하는 때 즉 節氣가 바뀌는 때를 말한다. ○張: 盧良侯曰 二至二分은 乃陰陽離合之候요 中宮은 乃占八風之時니 是以로 遞居本宮之第一日에 有變則占在君民將相也라 疾風折木揚沙는 暴戾之變氣也라 ○丹波: 八宮에 無居中央招搖之日하니 似可疑라 然이나 鄭玄云 四季乃入中央이라하니 則四季每十八日이 在中宮也라 ○校釋: 有變은 指氣候有暴變이라 占은 豫測의 意思라 太一在中宮之日은 中宮이 屬于土氣하여 寄位于四隅 故로 四隅當令之時가 卽是太一在中宮之日이라 ○語譯: 有變은 氣候變化라

이 矢石처럼 이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邪氣가 해를 끼칠 수 없는 것이다. 또 本經의 歲露篇을 살펴보면 ‘太乙이 冬至에 마蟄宮에 위치하고 있을 때에 風雨가 南方에서 불어오면 虛風이고, 立春에 風雨가 西方에서 불어오는 것도 虛風이다’고 했으므로 이 篇에서 이른바 뒤에 불어오는 것이 虛風이라고 한 것은 모름지기 東은 西와 北이 뒤가 되고 南은 北과 東이 뒤가 되며 西는 東과 南이 뒤가 되고 北은 南과 西가 뒤가 됨을 알아야 된다.”⁹⁾고 하였고,

景岳·白話解·校釋은 “風雨의 微甚을 살펴 그 變化를 알아내고 또 마땅히 그 方位를 살펴 吉凶을 예측해야 한다. 所居라고 하는 것은 太一이 머물고 있는 곳이니, 예를 들면 月建이 子方에 있을 때에 風이 北方에서 불어오는 것은 겨울의 바른 기운이고, 月建이 卯方에 있을 때에 風이 東方에서 불어오는 것은 봄의 바른 기운이며, 月建이 午方에 있을 때에 風이 南方에서 불어오는 것은 여름의 바른 기운이고, 月建이 酉方에 있을 때에 風이 西

9) ●馬: 其風從所居之鄉來는 如冬至來自北方하고 春分來自東方之謂니 是之謂實風也니 主生長하여 以養萬物者라 或從其衝後來는 如冬至從南西二方而來하고 春分從西北二方而來니 夫是之謂虛風也니 主殺害하여 以傷人者라 謹宜審候此虛風而避之니 唯聖人이라야 避之如矢石하니 所以邪弗能害也라 又按本經歲露篇컨대 以太乙冬至居蟄宮而風雨從南方來者爲虛風이요 立春之日而風雨從西方來者爲虛風이라하니 則此篇所謂從後來者爲虛風은 須知東은 以西與北으로 爲後요 南은 以北與東으로 爲後요 西는 以東與南으로 爲後요 北은 以南與西로 爲後也라 ○張: 盧良侯曰 實風者는 春之東風과 夏之南風과 秋之西風과 冬之北風과 春夏交之東南風과 秋冬交之西北風이니 此는 天地四時之正氣 故로 主生長養萬物이라 從其衝後來者는 如冬至에 從南西二方而來요 春分에 從西北二方而來니 是爲虛鄉不正之風이니 主傷人而殺害萬物 故로 聖人이 日避虛邪之道를 如避矢石이라 日避者는 太乙出遊之一日也라

方에서 불어오는 것은 가을의 바른 기운이니, 네 모서리에 배속되어 있는 十二建도 그 기운이 다 그러하다. 氣가 바른 경우에는 正氣가 旺盛해지기 때문에 實風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운은 生長의 속성이 있어 萬物을 기른다. 衝이라는 것은 對衝이라는 것이고, 後라는 것은 그 기운이 오는 것이 먼 것인데 멀면 氣도 盛하게 된다. 예를 들면 太一이 子位에 있을 때에 風이 南方에서 불어오면 火가 도리어 우세한 것이고, 太一이 卯位에 있을 때에 風이 西方에서 불어오면 金이 木을 이기고 있는 것이며, 太一이 午位에 있을 때에 風이 北方에서 불어오면 水가 火를 이기고 있는 것이고, 太一이 酉位에 있을 때에 風이 東方에서 불어오면 木이 도리어 우세한 것이다. 氣가 바른 위치를 잃으면 正氣가 不足해지기 때문에 虛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을 傷하여 殺害를 주장하므로 어떻게든 避해야 한다.”¹⁰⁾

10) ●景岳：既察風雨之微甚하여 以觀其變하고 又當察其方位하여 以占吉凶이라 所居者는 太一所居之鄉也니 如月建居子에 風從北方來는 冬氣之正也요 月建居卯에 風從東方來는 春氣之正也요 月建居午에 風從南方來는 夏氣之正也요 月建居酉에 風從西方來는 秋氣之正也니 四隅十二建도 其氣皆然이라 氣得其正者는 正氣王也라 故曰實風이니 所以能生長養萬物이라 衝者는 對衝者요 後者는 言其來之遠이니 遠則氣盛也라 如太一居子에 風從南方來하면 火反勝也요 太一居卯에 風從西方來하면 金勝木也요 太一居午에 風從北方來하면 水勝火也요 太一居酉에 風從東方來하면 木反勝也라 氣失其正者는 正氣不足 故曰虛風이니 所以能傷人而主殺主害니 最當避也라 ○白話解：所居之鄉은 是指太一所居之方位니 在每一季節中에 所出現當令의 風向이라 如春東風과 夏南風과 秋西風과 冬北風之類라 從其衝後來爲虛風의 衝은 是指月建所屬之地支가 與風來之方位로 彼此互衝의 意思라 例如十一月(子月)에 發南風(南在午位)이면 子午相衝이요 二月(卯月)에 發西風(西在酉位)이면 卯酉相衝等等이라 ○校釋：所居之鄉은 指太一所居之方位니 是說在每一季節中에 所出現의 當令의 風向이라 如

고 하였다.

【考 察】

1. 多汗은 『太素』에 ‘多雨’으로 되어 있고, 『集注』와 『類經』에도 ‘多雨’으로 고쳐야 된다고 하였는데, 앞 구절에 ‘多雨’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多雨’이 맞다.
2. “從一處至九日”중 日은 날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太乙이 옮겨가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太一移日 天必應之以風雨 以其日風雨則吉 歲美民安少病矣”의 해석에 있어, 馬·張은 太乙이 宮을 옮기는 날짜에 무조건 風雨가 있게 되면 吉하다고 하였고, 景岳·張·白話解는 太乙이 宮을 옮기는 날짜에 무조건 風雨가 있게 되면 吉한 것이 아니고 風雨가 調和있게 내리면 吉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常識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어떤 현상이 무조건적으로 인간에게 유리하다는 語法은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어느 시기에 생기는 기상변화라도 인간이 적응하기 적절한 변화가 인간의 건강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문의 風雨는 調和롭게 생기는 현상이어야 한다는 景岳 등의 해석이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4. 본문의 “太一在冬至之日有變 占在君 太一在春分之日有變 占在相 太一在中宮之日有變 占在吏 太一在秋分之日有變 占在將 太一在夏至之日有變 占在百姓——各以其所主 占貴賤”이라는 문구는 고대인들이 당시의 역사적 조건의 제한아래에서 제시한 내용으로서

春多東風과 夏多南風과 秋多西風과 冬多北風之類라 實風은 指有利于萬物生長의 正常氣候라 從其衝後來爲虛風의 衝은 指時令與風向互相對衝의 意思라 例如十一月(居北方子位)에 刮起南風(南在午位)이면 子午相衝이요 二月(居東方卯位)에 刮起西風(西在酉位)이면 屬卯酉相衝等이라 虛風은 指有害于萬物의 反常氣候라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전혀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5. 虛風의 來源處에 대한 견해에 있어 馬·張은 봄에 西北風, 여름에 北東風, 가을에 東南風, 겨울에 南西風이 불어오는 것이 虛風이라 風向을 조금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景岳·白話解·校釋은 겨울에 南風, 봄에 北風, 여름에 北風, 가을에 東風이 불어오는 것이 虛風이라 하여 風向을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보면 景岳 등의 견해가 정확한 듯 싶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는 馬 등의 견해가 보다 포괄적이어서 적용하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直譯】

太一이 遊行하는 날자는 冬至에는 叶蟄宮에 머무는데, 各 宮에 머무는 날짜를 계산해보면 첫 번째 處所(叶蟄宮)에서부터 아홉 번째에 이르렀다가 다시 첫 번째 처소에 이르면, 항상 이와 같이 끝임이 없어 끝나면 다시 시작한다. 太一이 옮겨 갈 때에는 하늘이 반드시 風雨로 반응하니, 바로 그 날에 風雨가 있으면 吉하여 그 해에는 풍년이 들고 백성들이 편안하여 병이 적게 들고, 만일 太一이 옮겨 가기 전에 風雨가 있으면 비가 많이 오고 옮겨간 다음에야 풍우가 있으면 가뭄이 있게 된다. 太一이 冬至에 있을 때 氣候에 變化가 있으면 그 반응이 임금에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太一이 春分에 있을 때 氣候에 變化가 있으면 그 반응이 재상에게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며, 太一이 中宮에 있을 때 氣候에 變化가 있으면 그 반응이 官吏에게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太一이 秋分에 있을 때 기후에 변화가 있으면 그 반응이 將帥에게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며, 太一이 夏至에 있을 때 기후에 변화가 있으면 그 반응이 百姓에게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른바 變化가 있다고 한 것은 太一이 위의 五宮에

있을 때를 말하는데, 이상스런 바람이 불어 樹木을 부러뜨리고 沙石이 날리니 各其 그것이 主官하는 때를 가지고 貴賤을 예측할 수 있다.

바람이 오는 방향에 근거해서 기후변화를 예측해야만 한다. 바람이 그 계절에 걸 맞는 방향에서 불어오는 것은 實風이니 生長을 주장하여 萬物을 기르고, 바람이 계절에 반대로 불어오는 것은 虛風이니 사람을 傷하게 하는 것으로 죽이거나 害를 주장한다. 삼가 虛風을 살펴 이를 避해야 한다. 그러므로 聖人들은 날마다 虛邪를 피하는 도리를 矢石을 피하듯이 하여 邪氣가 害를 끼치지 못한다고 했으니 이를 말한 것이다.

3. 八風所主之病

【原文】

是故로 太一이 入徙立於中宮¹⁾이라야 乃朝八風하여 以占吉凶也라 風從南方來를 名曰大弱風이라 其傷人也에 內舍於心하고 外在於脈하니 氣主熱²⁾이요 風從西南方來를 名曰謀風이라 其傷人也에 內舍於脾하고 外在於肌³⁾하니 其氣主爲弱이요 風從西方來를 名曰剛風이라 其傷人也에 內舍於肺하고 外在於皮膚하니 其氣主爲燥⁴⁾요 風從西北方來를 名曰折風이라 其傷人也에 內舍於小腸하고 外在於手太陽脈하니 脈絕則溢⁵⁾하고 脈閉則結不通하여 善暴死요 風從北方來를 名曰大剛風이라 其傷人也에 內舍於腎하고 外在於骨與肩背之筋筋하니 其氣主爲寒也요 風從東北方來를 名曰凶風이라 其傷人也에 內舍於大腸하고 外在於兩脇腋骨下及肢節이요 風從東方來를 名曰嬰兒風이라 其傷人也에 內舍於肝하고 外在於筋紐⁶⁾(1)하니 其氣主爲身濕⁷⁾이요 風從東南方來를 名曰弱風이라 其傷人也에 內舍於胃하고 外在於肌肉하니 其氣主體重⁸⁾이라 此八風⁹⁾은 皆從其虛之鄉來하

여 乃能病人하니 三虛(2)相搏(10)則爲暴病卒死
요 兩實一虛(11)하여 病則爲淋露寒熱(12)이오
犯其雨濕之地則爲痿라 故로 聖人이 避風(13)을
如避矢石焉이라 其有三虛而偏中於邪風則爲擊
仆偏枯矣라

【校勘】

- 1) 入徙立於中宮: 『注證發微』와 『集注』에
는 '徙立於中宮'으로 되어 있다.
- 2) 氣主熱: 『甲乙』卷六第一과 『太素』卷二十
八「九宮八風」에는 '其氣主爲熱'로 되어 있
다.
- 3) 外在於肌: 『甲乙』卷六第一에는 '外在於肌
肉'으로 되어 있다.
- 4) 其氣主爲燥: 『太素』卷二十八「九宮八風」
에는 '其氣主爲身燥'로 되어 있다.
- 5) 外在於手太陽脈 脈絕則溢: 『甲乙』卷第六
一에는 '外在於手太陽之脈 脈絕則泄'로 되어
있다.
- 6) 外在於筋紐: 『太素』卷二十八「九宮八風」
에는 '外在於筋紐'으로 되어 있다.
- 7) 其氣主爲身濕: 『甲乙』卷六第一에는 '其氣
主爲濕'으로 되어 있다.
- 8) 外在於肌肉 其氣主體重: 『甲乙』卷六第一에
는 '外在於肌 其氣主爲體重'으로 되어 있다.
- 9) 此八風: 『甲乙』卷六第一과 『太素』卷二十
八「九宮八風」에는 '凡此八風'으로 되어 있
다.
- 10) 三虛相搏: 『甲乙』卷六第一과 『太素』卷
二十八「九宮八風」에는 '三虛相薄'으로 되
어 있다.
- 11) 兩實一虛: 『甲乙』卷六第一에는 '兩虛一
實'로 되어 있다.
- 12) 病則爲淋露寒熱: 『太素』卷二十八「九宮
八風」에는 '病則爲淋洛寒熱'로 되어 있고,
日抄本에는 '病則爲淋露寒熱'로 되어 있다.
- 13) 聖人避風: 『太素』卷二十八「九宮八風」

에는 '聖人避邪風'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筋紐: 筋이 모이는 곳을 말함.
- (2) 三虛: 몸이 虛弱한 사람이 歲氣不及한
해를 만나 虛風에 感觸된 경우를 말함.

【較註】

〔1〕是故太一 入徙立於中宮 乃朝八風 以占
吉凶也
楊·馬·景岳·張·白話解는 “以下는 太一
이 中宮에 위치하여 八風을 朝會하므로서 吉
凶을 점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¹¹⁾고 하
였다.

〔2〕風從南方來 名曰大弱風 其傷人也 內舍
於心 外在於脈 氣主熱
馬·景岳은 “이 아래는 다 虛風이 사람을
손상시켜서 病이 된 것을 이야기 한 것이다.
南方은 離火宮이니, 熱이 왕성한 지방에 바람
이 이를 때에는 반드시 미약하게 때문에 大弱
風이라고 한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火藏이
상응하여 안으로 心에 머물고 밖으로 脈에 있
게 되므로 그 病은 熱이 되고, 心이 病들면
包絡은 자연히 그 가운데에 포함되어 함께 병
들게 된다.”¹²⁾고 하였다.

11) ●太素: 以下는 言太一이 徙於中宮하여 以
朝八風하여 以占吉凶也라 ○馬: 此는 又言
朝八風이라야 可以占吉凶也라 ○景岳: 此는
正以明太一이 卽北極也라 蓋中不立이면 則
方隅氣候가 皆不得其正 故로 太一이 立於中
宮하고 而斗建其外然後에야 可以朝八風하여
占吉凶하니 所謂北辰北極이 天之樞紐者는
以此라 ○張: 盧良侯曰 太乙이 出遊之第五
日에 立於中宮이라야 乃朝八風하여 以占吉
凶이라 ○白話解: 入徙는 是出遊의 相對요
也就是進入所移徙의 一宮之意라 立於中宮은
就是居于當中の位置니 借此可測候左右前後
의 八方이라

12) 馬: 南方屬火하여 主於熱하니 人之心應之

〔3〕風從西南方來 名曰謀風 其傷人也 內舍於脾 外在於肌 其氣主爲弱

馬·景岳은 “西南方은 坤土宮이니, 陰氣가 막 생길 때에는 陽氣가 오히려 盛하여 陰陽의 去就를 마치 議論한 바가 있는 것 같으므로 謀風이라고 한다. 사람에 있어서는 土藏이 상응한다. 그러므로 안으로는 脾에 머물고 밖으로는 肌에 있게 되는 것이다. 脾는 陰濕을 싫어하므로 그 氣가 弱하게 된다.”¹³⁾

〔4〕風從西方來 名曰剛風 其傷人也 內舍於肺 外在於皮膚 其氣主爲燥

馬·景岳은 “西方은 兌金宮인데 金氣는 剛勁하기 때문에 剛風이라고 한다. 사람에 있어서는 金藏이 상응하여 안으로는 肺에 머물고 밖으로는 皮膚에 있게 되므로 그 病의 기운은 燥를 주장한다.”¹⁴⁾고 하였다.

〔5〕風從西北方來 名曰折風 其傷人也 內舍於小腸 外在於手太陽脈 脈絕則溢 脈閉則結

하여 通於脈 故로 風從南方來者를 名曰大弱風이라 其傷人에 內舍於心而外在於脈하니 其氣主於爲病之熱也라 ●景岳: 此下는 皆言 虛風傷人之爲病이라 南方은 離火宮也니 凡 熱盛之方에 風至必微 故로 曰大弱風이라 其在於人하여는 則火藏應之하여 內舍於心하고 外在於脈하니 其病爲熱이요 心病則包絡在其中矣라

13) 馬: 其從西南方來者는 爲謀風이라 主傷於脾而外在於肌하니 其氣主爲弱이라 ●景岳: 西南方은 坤土宮也니 陰氣方生에 陽氣猶盛하여 陰陽去就를 若有所議 故로 曰謀風이라 其在於人하여는 則土藏應之라 故로 內舍於脾하고 外在於肌라 脾惡陰濕 故로 其氣主爲弱이라

14) 馬: 西方屬金하여 主於燥하니 人之肺應之하여 通於皮膚 故로 風從西方來者를 名曰剛風이라 其傷人에 內舍於肺而外在於皮膚하니 其氣主於爲病之燥也라 ●景岳: 西方은 兌金宮也니 金氣剛勁 故로 曰剛風이라 其在於人하여는 則金藏應之하여 內舍於肺하고 外在於皮膚하니 其病氣主燥也라

不通 善暴死

馬·景岳은 “西北方은 乾金宮인데 金은 折傷을 주관하기 때문에 折風이라고 한다. 風氣가 사람을 傷하게 할 때에 南方에서는 人체 上部로 반응하고 北方에서는 人체 下部로 반응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小腸手太陽經이 病을 받는 것은 小腸은 丙에 속하여 下焦의 火府가 되는데 乾亥方의 虛風이 巳方으로 충돌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西方金은 그 氣가 肅殺하고 北方水는 그 氣가 慘冽하므로 西와 北이 氣를 합하면 가장 사람의 生陽하는 기운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을 暴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¹⁵⁾

〔6〕風從北方來 名曰大剛風 其傷人也 內舍於腎 外在於骨與肩背之筋 其氣主爲寒也

馬·景岳은 “北方은 坎水宮인데 氣가 寒하면 바람도 猛烈해 지므로 大剛風이라고 한다. 사람에 있어서는 水藏이 반응하여 안으로는 腎에 머물고 밖으로는 骨, 肩背筋에 있게 되는데 足太陽經이다. 腎을 언급하면 膀胱은 또한 그 가운데에 포함되는데 病氣는 다 寒을 주장한다.”¹⁶⁾고 하였다.

15) 馬: 西北方來者는 爲折風이니 內傷於小腸而外在手太陽之脈이라 ●景岳: 西北方은 乾金宮也니 金主折傷 故로 曰折風이라 凡風氣傷人에 南應在上하고 北應在下 故로 此小腸手太陽經受病者는 以小腸屬丙하여 爲下焦之火府로되 而乾亥虛風은 其衝在巳也일새라 然이나 西方之金은 其氣肅殺하고 北方之水는 其氣慘冽하니 西北合氣하면 最伐生陽 故로 令人善暴死라

16) 馬: 北方屬水하여 主於寒하니 人之腎應之하여 通於骨 故로 風從北方來者를 名曰大剛風이라 其傷人에 內舍於腎而外在於骨及肩背內之筋筋하니 其氣主於爲病之寒也라 ●景岳: 北方은 坎水宮也니 氣寒則風烈 故로 曰大剛風이라 其在於人하여는 則水藏應之하여 內舍於腎하고 外在於骨肩背筋筋하니 足太陽經也라 言腎則膀胱亦在其中이로되 而病氣는 皆主寒也라

〔7〕風從東北方來 名曰凶風 其傷人也 內舍於大腸 外在於兩脇腋骨下及肢節

馬·景岳은 “東北方은 艮宮인데 陰氣가 아직 물러나지 않았을 때에는 陽和之氣도 盛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凶風이라고 한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손상이 大腸에 미치게 되니, 大腸이라는 것은 庚에 속하여 下焦의 金府가 되는데 艮寅方의 虛風이 申方으로 충돌해 들어가기 때문이다. 兩脇腋骨下는 大腸이 가까이 있는 부위이고 肢節은 手陽明脉氣가 미치는 곳이다.”¹⁷⁾고 하였다.

〔8〕風從東方來 名曰嬰兒風 其傷人也 內舍於肝 外在於筋紐 其氣主爲身濕

馬·景岳은 “東方은 震木宮인데 風은 東에서 생기기 때문에 嬰兒風이라고 한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木藏이 상응하기 때문에 病이 肝에 머물고 밖으로는 筋紐에 있게 되는데 肝이 病 들면 膽도 그 가운데에 포함된다. 風은 본래 濕을 이기는데 그 氣가 오히려 몸을 濕하게 하는 까닭은 東南方은 물이 많은 곳이어서 濕氣가 항상 있다. 그러므로 東風이 불고 비가 많이 오면 濕의 徵候를 볼 수 있다.”¹⁸⁾고 하

17) 馬: 東北方來者는 爲凶風이라 內傷於大腸而外在於兩脇旁骨下及肢節하니 以大腸이 與別腑로 不同하여 皆能受傷者也라 ●景岳: 東北方은 艮宮也니 陰氣未退에 陽和未盛 故로 曰凶風이라 其在於人하여는 則傷及大腸하니 以大腸屬庚하여 爲下焦之金府로되 而艮寅虛風은 其衝在申也일새라 兩脇腋骨下는 大腸所近之位요 肢節은 手陽明脉氣所及이라

18) 馬: 東方屬木하여 主於風濕하니 人之肝應之하여 通於筋紐하니 其氣主於爲病之風濕也라 夫東方主風而曰濕病者는 以風爲嬰兒니 其氣尙柔하여 而不勝濕故也 ●景岳: 東方은 震木宮也니 風生於東 故로 曰嬰兒風이라 其在於人하여는 則木藏應之라 故로 病舍於肝하고 外在於筋紐하니 肝病則膽在其中矣라 風本勝濕而其氣反爲身濕者는 以東南水鄉에 濕氣所居라 故로 東風多雨에 濕徵을 可見矣라

였고,

丹波·校釋·白話解는 “筋紐는 筋이 結合되어 있는 곳이다.”¹⁹⁾고 하였다.

〔9〕風從東南方來 名曰弱風 其傷人也 內舍於胃 外在於肌肉 其氣主體重

馬·景岳은 “東南方은 巽水宮인데 氣가 따듯해지면 바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弱風이라고 한 것이다. 東南에서 濕이 勝하면 木을 끼고 토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사람을 상하게 하면 안으로는 胃에 머물고 밖으로는 肌肉에 병이 있게 되는데 그 病의 氣運은 주로 몸을 무겁게 한다.”²⁰⁾고 하였다.

〔10〕此八風은 皆從其虛之鄉來하여 乃能病人하니 三虛相搏則爲暴病卒死요 兩實一虛하여 病則爲淋露寒熱이요 犯其雨濕之地則爲痿라 故로 聖人이 避風을 如避矢石焉이라 其有三虛而偏中於邪風則爲擊仆偏枯矣라

楊은 “風이 뒤로부터 오기 때문에 虛鄉來라고 한 것이다. 三虛는 年虛, 月虛, 時虛를 말한다. 三虛가운데에 비록 두 가지는 實하고 한 가지만 虛할때에 邪氣를 만나도 오히려 淋洛, 寒熱이 되고 居處하는 곳이 濕地이면 바로 痿厥이 되는데, 하물며 두 가지는 虛하고 한 가지는 實할 때에 邪氣를 만나면 그 病이 어찌 낫하지 않겠는가. 만약 먼저 세 가지가 다 虛할 때에 邪氣를 마주치면 擊仆, 偏枯의 病에 걸리게 된다.”²¹⁾고 하였고,

19) 丹波: 筋紐는 筋所束也라 ●校釋: 筋紐는 筋의 相結處라 ○白話解: 筋紐는 也就是指筋的系結之處라

20) 馬: 東南方來者는 爲弱風이니 以辰主於土也요 內傷於胃而外在於肌肉하니 其氣主體重이라 ●景岳: 東南方은 巽水宮也니 氣煖則風柔 故로 曰弱風이라 東南濕勝하면 挾木侮土 故로 其傷人則內舍於胃하고 外在於肌肉하니 其病氣主體重也라

21) 楊: 風從衝後來 故로 稱虛鄉來라 三虛는

馬는 “이 八風은 다 뒤로부터 온 것이 虛風이니, 바로 虛한 곳에서 온 것이다. 예를 들면 立冬에 風이 南方이나 西方에서 온 것과 立春에 風이 北方이나 西方에서 온 것과 立夏에 風이 北方이나 東方에서 온 것과 立秋에 風이 南方이나 東方에서 온 것이 이것이다. 三虛는 素問刺法과 本病 二篇에 근거해보면 바로 ‘以人憂愁思慮傷心’과 ‘汗出於心 驚而奪精’이 사람의 두 가지 虛이고, 司天失守를 만나 자연이 虛해 진 것이 세 번째 虛이다. 그리고 뒤편인 歲露論에 근거해보면 ‘乘年之虛’가 一虛가 되니 바로 ‘司天失守’가 이 것이고, ‘逢月之虛’가 一虛이니 바로 月郭이 空虛해지면 海水가 東으로 盛해 진다고 云云한 것이 이것이며, ‘失時之和’가 一虛이니 바로 봄에는 따뜻해야 하는데 오히려 寒이 盛해진 것이 이것이다. 이 篇에 근거해보면 사람이 이미 虛한데 그 때에 불어오는 바람도 虛하고 또 그 해의 運歲까지도 虛한 것을 三虛라고 하는데 三虛가 서로 얹히면 暴病이 되어 갑자기 죽게 된다. 가령 ‘人實’, ‘歲實’한데 風이 虛하면 바로 淋露寒熱에 그치게 되는데, 대개 사람이 이슬에 적셔지게 되면 반드시 寒熱이 되고, 或 雨濕이 많은 곳을 犯하면 바로 痿病이 된다. 그러므로 聖人이 이 虛邪의 風을 피하기를 마치 矢石을 피하듯이 한 것이다. 만약 三虛가 있는데 風이 한 쪽으로만 적중되면 또 擊仆가 되어 偏枯가 되는데, 擊仆는 마치 남한테 맞은 듯이 쓰러져 어지러운 것이고 偏枯는 左側이나 혹은 右側 한 쪽만이 마르는 것이다.”²²⁾고 하였

謂年虛月虛時虛라 三虛之中에 縱使二實하고 但令一虛에 遇邪라도 猶爲淋露寒熱이요 居處濕地即爲痿厥이니 況二虛一實에 遇邪면 其病이 安得不甚이리오 若先三虛逢邪면 遂致擊仆偏枯之病也라

- 22) 馬: 此八風者는 皆從其衝後來爲虛風이니 卽虛之鄉來也라 如立冬而風從南方西方來와 立春而風從北方西方來와 立夏而風從北方東方來와 立秋而風從南方東方來者是也라 三虛

으며,

景岳은 “上文에 기재되어 있는 病은 다 虛風을 이야기한 것으로서 實風은 그 班列에 없다. ‘乘年之衰’와 ‘逢月之空’과 ‘失時之和’를 三虛라고 한다.—— 兩實一虛라는 것은 三虛中에서 한 가지를 犯한 것이니 또한 病이 될 수 있다. 그 病은 或 淋雨로 인하거나 或 露風으로 인하여 寒熱이 되거나, 或 雨濕한 곳을 범하여 痿가 된 것이니 다 一虛의 病이다. 邪風은 제 때에 나타나지 않은 不正한 바람이다. 擊仆는 風에 맞아 쓰러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三虛를 범한 다음에 이 病이 되니, 그렇다면 사람 중에 正氣가 實한 사람은 邪氣에 손상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²³⁾고 하였

者는 據素問刺法本病二篇컨대 則以人憂愁思慮傷心과 及汗出於心 驚而奪精이 爲人二虛요 遇司天失守하여 爲天之虛爲三虛라 據後歲露論컨대 以乘年之虛爲一虛니 卽司天失守是也요 逢月之虛爲一虛니 卽月郭空則海水東盛云云이 是也요 失時之和爲一虛니 卽春應煖而反寒之盛이 是也라 據此篇컨대 其人已虛에 其風又虛하고 其歲又虛를 是謂三虛니 三虛相薄則爲暴病卒死矣라 假如人實歲實而風虛면 則止爲淋露寒熱이니 蓋人爲露所淋이면 必發爲寒熱也요 或犯其雨濕之地면 則爲痿病이라 故로 聖人이 避此虛邪之風을 如避矢石이라 若有三虛而爲風偏中之면 則又爲擊仆爲偏枯矣니 擊仆者는 如擊之而仆暈也요 偏枯者는 或左或右偏枯也라

- 23) 景岳: 凡上文之爲病者는 皆以虛風爲言이요 而實風은 不在其列이라 乘年之衰와 逢月之空과 失時之和를 是謂三虛니 義詳下章이라 又三虛에 云 驚而奪精과 汗出於心等義는 詳後四十三四二章이라 兩實一虛는 言三虛犯一이니 亦能爲病이라 其病은 則或因淋雨하고 或因露風하여 而爲寒熱이요 或犯其雨濕之地하여 而爲痿니 皆一虛之爲病也라 邪風은 非時不正之風也라 擊仆는 爲風所擊而仆倒也라 然이나 必犯三虛而後에 爲此病이니 則人之正氣實者는 邪不能傷을 可知矣라

張은 “盧良侯가 말하길 ‘八風은 四正方과 四維方에서 불어오는 風이다. 사람의 五臟은 五方과 五行에서 생겨서 안으로 六腑에 속하고 밖으로 皮, 脈, 肉, 筋, 骨에 합하여 진다. 그러므로 八方의 不正之風이 안으로 臟腑를 傷하게 하고 밖으로 形身을 병들게 하는데, 이는 다 虛한 곳을 따라 와야만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叶蟄宮에 머물다 出遊한 第五日에 風이 南西二方으로부터 오거나 倉門宮에 머물다 出遊한 第五日에 風이 西北二方으로부터 온 것이니 그 所在하는 날짜를 셈하여 그때 불어오는 不正한 바람을 다 虛風이라고 한다. 三虛는 年虛를 타거나 月虛를 만나거나 時和를 잃은 것이니, 三虛가 서로 얹히면 暴病이 들어 卒死하게 된다. 兩實一虛는 단지 虛風에만 상한 것이다. 淋露寒熱은 땀이 나와 寒이 되거나 熱이 된 것이고, 그 雨濕한 곳을 범하면 風濕이 相搏하여 痿證이 되는 것이고, 三虛가 있는 가운데 邪風에 偏中되면 擊仆偏枯가 되기 때문에 聖人이 바람을 피하기를 矢石을 피하듯이 하는 것이다’고 하였고, 倪仲玉이 말하길 ‘거듭 聖人避風如避矢石라고 한 것은 上節은 太乙이 出遊한 第一日을 피하라는 말이고, 이는 太乙이 中宮에 立하여 八風을 朝會하는 때를 피하라는 말이다.”²⁴⁾고 하였으며,

24) 張: 盧良侯曰 八風者 四正四維之風也 人之五臟은 生於五方五行하여 內合六腑하고 外合於皮脈肉筋骨이라 是以로 八方不正之風이 內傷臟腑하고 外病形身하니 此는 皆從其 虛之鄉來라야 乃能病人也라 如居叶蟄之宮而 出遊之第五日에 風從南西二方而來거나 如居 倉門之宮而出遊之第五日에 風從西北二方而來니 數所在日而來不正之風을 皆謂之虛風也라 三虛者는 乘年之虛와 逢月之虛와 失時之和니 三虛相搏則爲暴病卒死라 兩實一虛者는 止傷於虛風也라 淋露寒熱者는 汗出而爲寒爲熱也요 犯其雨濕之地則風濕相搏而爲痿요 其有三虛而偏中於邪風則爲擊仆偏枯 故로 聖人이 避風을 如避矢石焉이라 倪仲玉이 曰

白話解는 “三虛는 主로 虛弱人이 歲氣不足한 年虛를 만났는데 여기에 다시 虛風을 만난 것을 가리킨다. 本書 歲露論에 ‘年衰를 타고 月空을 만나며 時和를 잃어 賊風에 손상되는 것을 三虛라’고 하였는데, 저것은 當年의 歲氣不及(乘年之衰)과 或은 月黑無光한 時候(逢月之空)와 春不溫하고 夏不熱한 等等的 反常氣候(失時之和)를 가리킨 것이니 이것을 三虛라 한다. 또 素問 刺法論篇에 근거해보면 ‘사람이 병들어 心虛한데다가 또 君相二火의 司天이 제자리를 잃었을 때를 만나 感受되면 三虛라’고 하였고, 素問 本病論篇에 근거해 보면 ‘사람이 憂愁思慮하면 傷心하고 또 少陰司天인 해를 만나 天數가 不及하면 太陰濕土가 미리와 간섭하게 되니 바로 이것을 三虛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人氣, 天氣가 똑같이 虛한 것이다. 또 ‘놀래서 奪精되어 心에서 땀이 나오면 三虛가 된다’고 하였는데, 저것은 人體가 內傷을 입어 虛한데다가 歲時가 不及한 虛年에 다시 外感의 虛로 인하여 병들게 되면 바로 三虛라고 부른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²⁵⁾고 하였고,

重言聖人避風如避矢石者는 上節은 謂避太乙出遊之第一日이요 此는 避太乙이 立於中宮하여 所朝之八風也라

25) 白話解: 三虛는 主要是指虛弱的人이 逢歲氣不足의 年虛한대 再遭虛風이라 本書歲露論에 乘年之衰하고 逢月之空하고 失時之和하여 因爲賊風所傷을 是謂三虛라하니 這裏也是指當年的歲氣不及(乘年之衰)과 或月黑無光的時候(逢月之空)와 春不溫夏不熱等等的反常氣候(失時之和)니 叫做三虛라 又據素問刺法論篇컨대 人病心虛에 又遇君相二火司天失守하여 感而三虛라하고 素問本病論篇컨대 人이 憂愁思慮則傷心하고 又或遇少陰司天하여 天數不及하면 太陰이 作接間至하니 卽謂三虛也니 此卽人氣天氣同虛也라 又遇驚而奪精하여 汗出于心하면 因而三虛라하니 這都是說明人體既有內傷之虛하고 又在歲時不及的虛年에 再因外感之虛면 卽稱爲三虛라

語譯은 “莫文泉이 말하길 ‘淋露는 바로 羸露인데 옛날에는 疲困을 指稱하는 말이었다. 左傳昭元年杜注에 露를 羸라고 하였다. 淋은 옛날에 대부분 瘧으로 썼는데, 漢書에 瘧疾病이었다고 하였으므로 이 淋도 또한 瘧와 통한다.”²⁶⁾고 하였다.

【考 察】

1. ‘氣主熱’은 아래 문장에 전부 ‘其氣主爲一’로 되어 있고, 『甲乙』 卷六第一과 『太素』 卷二十八 ‘九宮八風’에도 ‘其氣主爲熱’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其氣主爲熱”의 오식으로 보인다.
2. ‘三虛相搏’이 『甲乙』 卷六第一과 『太素』 卷二十八 ‘九宮八風’에는 ‘三虛相薄’으로 되어 있는데 ‘薄’은 ‘搏’과 通用되므로 뜻을 풀이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3. ‘三虛’에 대한 記錄은 內經에 세 군데에서 보인다. 『靈樞·歲露論』에는 “乘年之衰하고 逢月之空하고 失時之和하여 因爲賊風所傷을 是謂三虛라”하였고, 『素問·刺法論』에는 “人病心虛에 又遇君相二火司天失守하여 感而三虛라”하였으며, 『素問·本病論』에는 “人이 憂愁思慮則傷心하고 又或遇少陰司天하여 天數不及하면 太陰이 作接間至하니 卽謂三虛也니 此卽人氣天氣同虛也라 又遇驚而奪精하여 汗出于心하면 因而三虛라”고 하였다. 이를 분석하면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年虛, 月虛, 時虛를 말한다. 여기의 年, 月, 時는 人體外的인 자연계의 조건을 말하는데 이들 조건이 한꺼번에 겹치면 사람에게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心虛한 상태에서 君火相火가 不及한 해를 만났을 때를 말한다. 이는 人氣와 天氣가 同時에 虛한 경우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遇驚而奪精 汗出于心”인데 이는 人虛狀態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어딘지 좀 애매하다. 전체적으로는 몸이 虛弱한 사람이 運氣가 不及한 해를 만나 外邪에 感觸된 경우를 三虛라고 할 수 있다.
4. ‘兩實一虛’를 景岳은 三虛중에 한가지에만 觸犯한 것으로, 張은 虛風에만 손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文脈上으로 보면, 虛風에 손상된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本篇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外界氣候의 異狀에 의해 생기는 疾病이기 때문에 張의 견해도 일리가 있다.
5. ‘淋露’를 楊은 ‘淋洛’, 馬는 ‘人爲露所淋’, 景岳은 ‘淋雨 露風’, 盧良侯는 ‘淋露寒熱者 汗出而爲寒爲熱也’, 語譯은 ‘莫文泉曰 淋露는 卽羸露니 古者以爲疲困之稱이라 左傳昭元年杜注에 露는 羸也라하니라 淋은 古多作瘧이라 漢書에 有瘧疲之病하니 是淋도 亦通疲라’, 校釋은 ‘疲困’, 白話解는 ‘疲勞困倦’, 中國醫學大辭典에서는 ‘淋露는 汗出如露滴也’고 하여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원문을 보면 ‘兩實一虛 病則爲淋露寒熱’라 하였으므로 淋露는 뒤의 寒熱처럼 疾病이 들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는게 타당할 것 같다. 따라서 校釋 등에서와 같이 疲困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26) 語譯: 莫文泉曰 淋露는 卽羸露니 古者以爲疲困之稱이라 左傳昭元年杜注에 露는 羸也라하니라 淋은 古多作瘧이라 漢書에 有瘧疲之病하니 是淋도 亦通疲라

〈八方虛風과 病變部位表〉

病名과 經路				人體에 미치는 影響		
九宮	五行	風向	風名	內舍	外在	主氣
離	火	南風	大弱風	心	脈	熱
坤	土	西南風	謀風	脾	肌	弱
兌	金	西風	剛風	肺	皮膚	燥
乾	金	西北風	折風	小腸	手太陽脈	脈絕則溢 脈閉則結不通 善暴死
坎	水	北風	大剛風	腎	骨與肩背之筋	寒
艮	土	東北風	凶風	大腸	兩脇腋骨下及肢節	
震	木	東風	嬰兒風	肝	筋紐	身濕
巽	木	東南風	弱風	胃	肌肉	體重

【直譯】

이러한 까닭으로 太一이 中宮으로 들어가 그 위치가 확립되어야만 나머지 八風의 위치도 정할 수 있어 吉凶을 占칠 수 있다.

風이 南方에서 불어오는 것을 大弱風이라고 한다. 그 바람이 사람을 상하게 할 때에 안으로는 心臟으로 침입하고 밖으로는 血脈에 머물게 되는데 그 기운은 주로 熱이다. 風이 西南方에서 불어오는 것을 謀風이라고 한다. 그 바람이 사람을 傷하게 할 때에 안으로는 脾臟

으로 침입하고 밖으로는 肌肉에 머물게 되는데 그 氣運은 주로 衰弱이다. 風이 西方에서 불어오는 것을 剛風이라고 한다. 그 바람이 사람을 傷하게 할 때에 안으로는 肺臟으로 侵入하고 밖으로는 皮膚에 머물게 되는데 그 기운은 주로 燥가 된다. 風이 西北方에서 불어오는 것을 折風이라고 한다. 그 바람이 사람을 傷하게 할 때에 안으로는 小腸에 침입하고 밖으로는 手太陽脈에 머물게 되는데, 脈이 끊어지면 넘치고 脈이 막히면 凝結되어 通하지 않게 되므로 갑자기 죽게 되는 경우가 많다. 風이 北方에서 불어오는 것을 大剛風이라고 한다. 그 바람이 사람을 傷하게 할 때에 안으로는 腎臟에 머물고 밖으로는 骨과 肩背의 筋筋에 머물게 되는데 그 氣는 주로 寒이 된다. 風이 東北方에서 불어오는 것을 凶風이라고 한다. 그 바람이 사람을 傷하게 할 때에 안으로는 大腸에 침입하고 밖으로는 兩脇腋骨下와 肢節에 머물게 된다. 風이 東方에서 불어오는 것을 嬰兒風이라고 한다. 그 바람이 사람을 傷하게 할 때에 안으로는 肝臟에 침입하고 밖으로는 筋紐에 머물게 되는데 그 氣는 주로 身濕이 된다. 東南方에서 불어오는 것을 弱風이라고 한다. 그 바람이 사람을 傷하게 할 때에 안으로는 胃에 침입하고 밖으로는 肌肉에 머물게 되는데 그 氣는 주로 體重이다. 이 八風은 다 虛한 곳으로부터 와야만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으니, 三虛가 서로 얹히면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고, 두 가지는 實하고 한 가지는 虛하여 病들게 되면 淋露寒熱이 되고, 그 雨濕한 곳을 범하게 되면 癢가 된다. 그래서 聖人들이 바람을 피하기를 矢石을 피하듯이 하는 것이다. 三虛가 있는데 다가 邪風에 偏中되면 쓰러져 偏枯證이 된다.

IV. 意 譯

太一은 恒常 冬至日로부터 叶蟄宮에 四十六日 동안 머물고, 다음 번에는 天留宮에 四十六日 동안 머물고, 다음 번에는 倉門宮에 四十六日 동안 머물고, 다음 번에는 陰洛宮에 四十五日 동안 머물고, 다음 번에는 天宮에 四十六日 동안 머물고, 다음 번에는 玄委宮에 四十六日 동안 머물고, 다음 번에는 倉果宮에 四十六日 동안 머물고, 다음 번에는 新洛宮에 四十五日 동안 머물고, 다음 번에는 다시 叶蟄宮에 머물게 되는데 冬至日이다.

太一이 各 宮으로 옮겨가는 날자는, 예를 들면 冬至에는 叶蟄宮에 머무는데, 이를 기준으로 太一 各 宮에 머무는 날짜를 계산해보면 첫 번째 處所(叶蟄宮)에서부터 아홉 번째에 이르렀다가 다시 첫 번째 처소에 이르는데, 항상 이와 같이 끝임이 없어 끝나면 다시 시작한다. 太一이 옮겨 갈 때에는 하늘이 반드시 風雨로 반응하는데, 바로 太一이 옮겨가는 바로 그 날에 風雨가 있게 되면 吉하여 그 해에는 풍년이 들고 백성들이 편안하여 병이 적게 들게 되고, 만일 太一이 옮겨가기 전에 風雨가 있게 되면 비가 많이 오게 되며, 옮겨간 다음에야 風雨가 있게 되면 가뭄이 있게 된다. 太一이 冬至에 머물고 있을 때에 氣候에 變化가 있으면 그 反應이 임금이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太一이 春分에 머물고 있을 때 氣候에 變化가 있으면 그 反應이宰相에게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며, 太一이 中宮에 머물고 있을 때 氣候에 變化가 있으면 그 반응이 官吏에게 있음을 예측할 수 있고, 太一이 秋分에 머물고 있을 때 기후에 변화가 있으면 그 반응이 將帥에게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며, 太一이 夏至에 머물고 있을 때 기후에 변화가 있으면 그 반응이 百姓에게 있

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른바 變化가 있다고 한 것은 太一이 위의 五宮 즉 四正之節(二分, 二至)과 中宮(土旺事之節)에 있을 때를 말하는데, 이때에는 이상스런 바람이 불어 樹木을 부러뜨리고 沙石이 날리니, 이는 各其 그 것이 主官하는 때 즉 太一이 주관하고 있는 方位를 가지고 受病者의 身分이 貴한가 賤한가를 예측할 수 있다.

바람이 불어오는 方向에 根據해서 氣候變化를 豫測해야 한다. 바람이 그 季節에 걸 맞는 方向에서 불어오는 것은 實風이니 生長을 주장하여 萬物을 기르고, 바람이 계절에 맞지 않게 반대로 불어오는 것은 虛風이니 사람을 傷하게 하는 것으로 주로 사람을 죽이거나 害를 끼친다. 삼가 이 虛風을 잘 살펴서 이를 避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聖人들은 날마다 虛邪를 피하는 道理를 矢石을 피하듯이 하므로서 邪氣가 害를 끼치지 못했다고 했으니 이를 말한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太一이 中宮으로 들어가 그 위치가 확립되어야만 나머지 八風의 위치도 정할 수 있어 吉凶을 占칠 수 있다.

風이 南方에서 불어오는 것을 大弱風이라고 한다. 그 바람이 사람을 상하게 할 때에 안으로는 心臟으로 침입하고 밖으로는 血脈에 머물게 되는데 그 기운은 主로 熱이다. 風이 西南方에서 불어오는 것을 謀風이라고 한다. 그 바람이 사람을 傷하게 할 때에 안으로는 脾臟으로 침입하고 밖으로는 肌肉에 머물게 되는데 그 氣運은 主로 衰弱이다. 風이 西方에서 불어오는 것을 剛風이라고 한다. 그 바람이 사람을 傷하게 할 때에 안으로는 肺臟으로 侵入하고 밖으로는 皮膚에 머물게 되는데 그 기운은 主로 燥가 된다. 風이 西北方에서 불어오는 것을 折風이라고 한다. 그 바람이 사람을 傷하게 할 때에 안으로는 小腸에 침입하고 밖으로는 手太陽脈에 머물게 되는데, 脈이 끊

어지면 넘치고 脈이 막히면 凝結되어 通하지 않게 되므로 갑자기 죽게 되는 경우가 많다. 風이 北方에서 불어오는 것을 大剛風이라고 한다. 그 바람이 사람을 傷하게 할 때에 안으로는 腎臟에 머물고 밖으로는 骨과 肩背의 筋에 머물게 되는데 그 氣는 주로 寒이 된다. 風이 東北方에서 불어오는 것을 凶風이라고 한다. 그 바람이 사람을 傷하게 할 때에 안으로는 大腸에 침입하고 밖으로는 兩脇腋骨下와 肢節에 머물게 된다. 風이 東方에서 불어오는 것을 嬰兒風이라고 한다. 그 바람이 사람을 傷하게 할 때에 안으로는 肝臟에 침입하고 밖으로는 筋紐에 머물게 되는데 그 氣는 주로 身濕이 된다. 東南方에서 불어오는 것을 弱風이라고 한다. 그 바람이 사람을 傷하게 할 때에 안으로는 胃에 침입하고 밖으로는 肌肉에 머물게 되는데 그 氣는 주로 몸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이 八風은 다 虛한 곳으로부터 와야만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으니, 三虛가 서로 얹히면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고, 두 가지는 實하고 한 가지는 虛하여 병들게 되면 淋露寒熱이 되고, 그 雨濕한 곳을 범하게 되면 癢가 된다. 그래서 聖人들이 바람을 피하기를 矢石을 피하듯이 하는 것이다. 三虛가 있는데다가 邪風에 偏中되면 쓰러져 偏枯證이 된다.

V. 結 論

1. 本篇은 사람과 自然이 緊密하게 相應한다는 觀念에서 출발하여, 天體의 運行規律에 근거하여 九宮圖說을 제시하고 있는데, 八方氣候變化의 正常과 異狀 그리고 그들이 人體에 미치는 다양한 影響을 推定하여 疾病을 豫防하는 根據資料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2. 九宮의 方位는 文王八卦에 根據해 배열해

놓았고, 八卦의 배열은 五行의 屬性에 따라 四面八方으로 配置하여 陰陽의 消長, 昇降, 進退의 여러 단계를 표시해 주고 있는데, 이로써 四時氣候의 변천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節氣의 명칭도 역시 八卦의 陰陽五行屬性和 관계가 있어 方位와 더불어 時間의 推移에 의한 氣候變化를 나타내고 있다.

3. 九宮數의 배열 형식은 '上九下一 左三右七 二四爲肩 六八爲足 五居中央'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洛書九宮數를 나타낸 것으로 『周書·洪範』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숫자의 배열은 東南西北의 方位에 따라 旋回하고 있는데 바로 左三, 上九, 右七, 下一의 순서이며, 이러한 숫자의 多寡는 四季氣候의 寒溫變化와 하루중의 햇빛의 強弱을 나타내고 있다.
4. 九宮의 名稱은 八卦方位와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季節, 氣候에 근거하여 이름이 붙여졌다.
5. 八風의 名稱은 嬰兒風, 弱風, 大弱風, 謀風, 剛風, 折風, 大剛風, 凶風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이름은 嬰兒風, 弱風, 大弱風, 剛風, 大剛風, 凶風과 같이 바람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謀風, 折風, 凶風과 같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어진 것도 있다.
6. 第一章의 '마'는 協의 古語로서 汙와 通한다. 왜냐하면 『周禮』大行人鄭司農注에 '汉은 마也'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따라서 『太素』에 汉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옳다.
7. 第一章의 '天宮'은 '上天'의 惡植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本篇 첫머리에 나오는 九宮圖에 '上天'으로 기재되어 있고, 『太素』卷二十八「九宮八風」에도 '上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上天'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8. 第二章의 '多汉'은 '多旱'으로 고쳐야, 앞 구

- 절의 '多雨'와 맺귀를 이루고 문맥상으로도 맞다.
9. 第二章의 "從一處至九日"중 日은 날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太乙이 옮겨가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0. 第三章의 '氣主熱'은 '其氣主爲熱'의 惡植으로 보인다.
11. 第三章의 '三虛'는 몸이 虛弱한 사람이 運氣가 不及한 해를 만나 外邪에 感觸된 경우를 말한 것으로 이해된다.
12. 第三章의 '淋瀝'는 症狀을 표현한 말로 이해하여 疲困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2.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3.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14. 丹波元簡, 素問識, 素問紹識, 靈樞識, 難經疏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15. 小曾戶洋, 黃帝內經古注選集5(靈樞講義), 오리엔트出版社, 1988.
16. 楊維傑, 黃帝內經靈樞經譯解,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81.
17. 王貴元 外1人, 評析本白話黃帝內經, 北京廣播學院出版社, 1993.
18.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서울, 論章, 1990.
19. 元陽真人, 黃帝內經(附白話全譯), 西南師範大學出版社, 1993.
20. 李政育, 靈樞讀書,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77.
21. 宗全和, 靈樞經, 春秋出版社, 內蒙古自治區, 1988.
22. 池田政一, 靈樞概論, 서울, 陰陽脈診出版社, 1992.
23. 鄭玄注, 文淵閣 四庫全書中 周禮注疏 臺灣商務印書館 1988.

VI. 參考文獻

1. 皇甫謐, 黃帝鍼灸甲乙經,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2. 楊上善, 黃帝內經太素(清·袁昶刻本), 서울, 大星文化社, 1991.
3. 楊上善, 黃帝內經太素(蕭延平本).
4.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5. 王冰, 王冰註靈樞經, 臺灣中華書局, 1972.
6. 馬蒔, 黃帝內經靈樞經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7. 張馬合注, 黃帝內經素問靈樞, 서울, 一中社, 1988.
8. 陣夢雷外 1人, 醫經註釋(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9.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92.
10.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靈樞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11. 廓竊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서울, 一中社, 1992.